

# 보물급 문화재 보존·관리 '구멍'

## 문화재관리국 자료 분석

최근들어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가 훼손되는 등 문화재관리국은 물론 각 시도 자치단체를 포함해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에 대한 운영 및 관리체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최근 문화재관리국의 관계자가 밝힌 자료와 자치단체의 문화재관리실 태를 확인한 결과 밝혀진 것으로 우리문화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81년부터 95년까지 15년간 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 전국 각 대학 박물관 등에 의해 발굴된 출토 유물은 35만여점에 이르나 이중 보존처리대상의 처리완료율은 불과 13%수준에 그치고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1만2천여점의 유물이 출토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엄청난 수의 문화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각 시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앙정부에 보수·보존처리 등을 떠넘기는 경우가 생기고, 중앙정부 역시 똑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함으로써 애써 발굴한 문화재가 그대로 썩어가는 일이 허다하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정하는 국보나 보물의 경우 외에도 각 시·도 지정 지방문화재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물급 문화재를 무단 방치하는가 하면,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순천 선암사 경우 대각국사진영을 비롯 탕화, 경관 등 다량의 보물급 문화재가 창고에 방치되고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마애여래좌상(국보 201호)이

## 보존처리율 불과 16%...대부분 창고서 낡잠 지자체 실시이후 문화재 지정 오히려 반감

국보지정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원형이 거의 훼손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지방문화재 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조차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현지확인조차 못한 것이 70%가 넘는 정도로,

◇보존처리 대상유물 현황 (단위: 점)

구분	출토유물	처리대상 유물	처리완료 유물	미처리 유물	처리 완료율(%)
문화재연구소 및 5대공	68,629	44,729	12,431	32,298	27.8
국립박물관	200,265	60,000	4,450	55,550	7.4
대학박물관	87,095	39,849	6,066	33,783	15.2
계	355,989	144,578	22,947	121,631	15.9

(1981~1995.3.1 현재)

지정만 했을 뿐 더욱 심각한 보존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지자체가 실시된 9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정된 각 시도별 유·무형 및 기념물 등의 지정문화재 건수는

모두 119건으로, 94년 7월부터 95년 5월까지의 212건보다 오히려 반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향토문화발굴 등 자치단체의 위상강화를 위해 지방지정문화재가 당연히 늘었을 것이라는 일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 도청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보존관리가 제대로 안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고, 한정된 인원과 예산이 과도한 문화재지정을 억제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무차별 방치되고 있는 이유로는 전문인력과 예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일례로 우리나라 문화재연구소의 전문인력과 예산은 이웃 일본 문화재연구소보다 2~4배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각 시·도별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은 한두명에 불과하며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재관리국 관계자는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우리문화재 보존실태는 그야말로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상이하의 수준으로, 행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문화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정비는 물론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조선 후기 목조불전으로 전남도 유형문화재 32호인 백양사 극락보전.

**백양사**

극락보전

阿彌陀佛在何方  
(아미타불재하방)  
着得心頭切莫忘  
(착득심두절막망)  
念到念窮無念處  
(염도염궁무념처)  
六門常放紫金光  
(육문상방자금광)  
(육문상방자금광)

아미타 부처님은 어느 곳에 계시까 마음에 간직하여 잊지 말 것이니 생각 생각 이어가다 생각조차 끊긴 곳에 이르르면 육근의 문에서 성스러운 금빛광명 천리하게 나오네

경배하는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십니다.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많은 중생들에게 극락왕생의 열원을 들어 온 부처님이기도 하다.

극락보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법당이다. 극락전이라고도 하고 무량수전, 아미타전이라고도 하는 법당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극락전이다. 극락이란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이다. 삶의 고통과 번뇌가 없는 지극히 즐겁고 아름다운 곳을 극락세계라 한다. 극락세계 극락정토 극락국토라는 말들도 불자들이 가고자 염원하는 나라, 땅의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다. 극락은 우리가 사는 사바 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 타 부처님의 정토라 한다. 그러나 극락보전에 모시고

마져 여의는 경지까지 이르러야 성불의 소식이 올 것이라 한다. 육근이란 사물과 현상을 인식하는 6가지의 식(識)과 경(境)의 근원이 되는 6가지 뿌리를 의미한다. 그 여섯가지 뿌리(根)는 안(眼)비(眼耳鼻舌身意)이다. 이 주련의 내용은 고려말의 고승 나옹화상이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안동 경안중 교사)

## 인터넷에 평화운동 넘실

### 불교관련 논문 게재·국제단체 활동

최근 인터넷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교관련 국제단체들이 세계평화운동의 일환으로 불교를 비롯해 종교와 비폭력운동에 관한 논문을 공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논문 중 니콜라스기어(아이디오 주립대학 철학·미국) 교수의 '비폭력 운동에 있어서 간디와 부처'와 알렌 앤더슨(커리대학 종교학과, 미국) 교수의 '새로운 사상운동' 등이 눈길을 끈다.

니콜라스 교수는 '비폭력 운동에 있어서 간디와 부처'에서 '역사상 비폭력운동은 최초로 이끈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로 두 종교는 인간의 마음 속에 도사리는 '열'을 불교는 자비로 기독교는 연민으로 다스렸다'고 지적했다. 알렌 교수는 '새로운 사상운동'에서 '동시대 인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다원화된 종교로서 이를 통해 인류는 보편적인 현실 속에서

자아를 찾아야 한다'며 '포스트모던'이라는 시

대정신에 걸맞게 각 종교의 독선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다원화된 종교로서 시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종교의 다원화 현상은 이미 작년 10월 '불교와 기독교:수렴과 이탈'라는 주제로 대만에서 열린 국제종교세미나를 통해서도 반증된 바 있다. 이 세미나에는 대만·스리랑카·태국·미국·이탈리아 등에서 20여명의 불교 및 기독교 종교학자들이 참여해 전쟁·빈곤·범죄·환경과 파괴 등의 지구촌 문제에 각 종교가 공동대응해 인류와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에는 '소카가카이 국제단체'에서 전개하고 있는 '불교 평화운동'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이 국제단체는 1960년에 일련종 사상을 통해 인류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로 설립해, 현재 미국을 비롯 이탈리아·일본 등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 "유불회통 논리로 배불론 대응"

### 박경주 교수 '조선초 기화스님의 시문학' 분석 문자 긍정적 인식...경기체가 사용 유효성 포용

합허 기화스님(1376~1433)은 불교의 참체기이자 전환기였던 여말선초 철학적 논리로 불교배척론에 맞서고, 시가문학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철학적 논리를 문학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투영시킨 독보적 스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경주교수(원광대 국문학)는 지난 15일 한국고전번역원 월례발표회에서 '전환기 불교가요의 문학적 대응 양상 고찰 -조선초기 기화(己和)의 작품을 대상으로-' 논문발표를 통해 합허의 사상과 선초 불교어체학에 대한 사상적 대응, 합



◇박경주교수

허의 가요가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교수가 가장 먼저 짚은 부분은 합허의 문자(文字)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다. 합허는 문자가 도를 나타내는 도구요 사함을 제도하는 방편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회통사상이다. 유·불·도 삼교는 근본은 하나이 되고 발현 양상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다. 여기에 합허는 불교우위론을 저변에 깔고 있었으나 선초 배

서 채상식교수(부산대)는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一然)의 현상과 복원의 문제' 주제의 기고에서 현재 일연비문의 완전한 탁본으로 인해 일연스님의 생애와 활약상에 관한 내용은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는 반면 일연비문(一然碑文)을 세우게 된 원인과 근거는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비문의 완전한 복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우)

### 불교춘추 3호 만공선사 중국활동 업적 소개

고서연구 13호 박영돈씨 회갑기념 논집 꾸며

○... (불교춘추) 3호는 조선의 승려로서 중국불교의 중흥조로 일컬어지고 있는 만공선사(1388~1463)의 업적을 새롭게 조명해 조영록교수(동국대)의 글을 실었다. 조교수는 중국 산둥성 태산 보조사에 있는 '중개산비(重開山碑)'는 만공선사의 40년에 걸친 중국에서의 활동과 업적을 담고 있다면서 중국불교사에 명조(明朝)국사로 추앙받는 만공선사에 대한 활동상의 기록이 국내에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 일연스님 연구에 결실을 맺어낸 재야 서지학자 박영돈씨의 회갑기념논집으로 꾸며진 <고서연구(古書研究)> 13호가 나왔다. 여기에

## 해남 대흥사 대웅전·청신암 훼손 심각

전남 해남군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의 대웅전과 청신암(淸神庵)이 건물 기둥이 기울는 등 훼손이 심화돼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대흥사는 해마다 5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찰로, 대형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부 중앙 기둥들도 연쇄적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내에서 5백여m 떨어진 비구니 스님들의 수도도량인 청신암도 기둥이 10도 가량 기울면서 법당 용마루가 내려앉아 비가 세고 문짝이 뒤물리는 등 붕괴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 해전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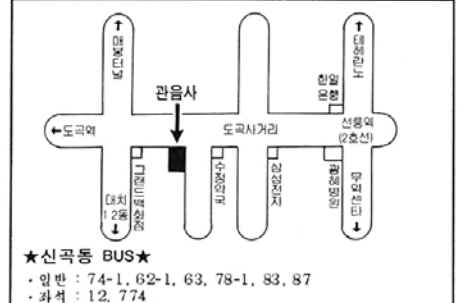
금번 관음사에서 불교 교양대학 모집은 현대의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날로 요구되는 때에 21세기를 대비하여 이론과 수행을 일체화 하여 초급반·중급반·고급반에 맞추어 전문법사·포교사·불교를 바르게 공부하고 싶은 여러 불자들에게 진정한 공부가 성취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교양대학을 다음과 같이 개설합니다.

1. 초급반
    - ①기초교리 ②천수경 ③기도 바르게 하는법(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2. 중급반
    - ①초 발심 자경문 ②반야심경 ③금강경(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 고급반
    - ①육조단경 ②참선특강 ③단전호흡 ④선 체조 ⑤정신통일법(매주 목요일 8시)
- ※ 1년에 2번 수련대회를 실시함.

※ 모집방법

- ①정규반 30명
- ②수업료 : ₩50,000
- ③기간 : 6개월 과정
- ④강의 장소 : 대처동 관음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21번지 오성B/D 201-3호)
- ⑤연락처 : 501-7870

011-574-8879 (핸드폰)



관음사 교육원장 鐵牛 合掌

본 강원은 사찰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강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기 어려운 스님들과(전문반) 재가 불자들의 불교공부(교양반)를 돕기 위하여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든 강원제도입니다.

##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수강안내

1. 전문반(강원코스)
    - 사미과=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치문
    - 사집과=도서, 절유, 서장, 선요, 대승백법명문론
    - 사교과=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오가해, 원각경
    - 의전과=기초의식(도량식, 중송, 예불의) 상용의식(불공, 시식, 관육, 대령)
  2. 교양반(교양코스)
    - 교리강좌=삼화표월지, 불교의 깨움
    - 경전강좌=금강경강화, 운허스님의 능엄경강화
    - 교양의식=삼화행도집
    - 교양불교사=운허스님의 불교통사, 전등록 초
  3. 수업요령
    - ①입학금 : 3만원 (재학기간 유효)
    - ②수업료 : 각과목마다 월 2만5천원
    - ③교재(카세트테이프)는 매월 8개씩 월초에 보내드립니다
    - ④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원에 문의바람
- 문의처 : ☎ (0346)68-1957(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대한불교 조계종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 金月雲